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2년 9월 15일

제 47 호

• 발행인 : 박찬숙 • 편집장 : 이현우
• 편집위원 : 채영신 황인우 유영미
유지현 오유경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3분기 정례 모임 40명 참석

윤태정 신입 회원 '메타버스(3차원 확장 세계)' 특강

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박찬숙) 3분기 정례 모임이 9월 1일(목) 오후 6시, 채영신 사무총장 사회로 황우겸 고문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상반기 활동 동영상 시청에 이어, 박찬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아나운서클럽 회원 여러분이 그래서 더욱 소중한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모임엔 신입 회원인 윤태정(전 UBC) CSA 대표의 <메타버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란 특강이 있었다. 1994년 MBC 전문 MC 3기로 시작해 부산, 울산 민방 아나운서 팀장으로 재직하다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활약하는 윤 회장은 메타버스(metaverse, 3차원 확장 세계)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현실 세상 위에 가상 현실 세계를 결합하는 이 기술은 머잖아 교육 분야를 비롯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획기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실제 HMD(Head Mounted Display)를 쓰고 박찬숙 회장, 박민정 감사, 이해옥 회원이 천상과 바다, 우주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3분기 정례 모임은 건강을 화두로 참석자들이 덕담을 나눈 후 박찬숙 회장은 “반가운 얼굴 만나고 근황을 들으니 좋다.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내고, 12월 27일 송년 모임에서 만나자.”라고 마무리했다.

참석자들에게는 성연미(전 KBS) 회원이 협찬한 기능성 화장품, 주아빛 워터밤 쿨링 톤업크림이 제공되었다.



趙芝薰 詩 <僧舞>



禹田 孟寬泳(전 KBS)
아나운서클럽회보 제호 작가
대한민국서예대전, 문인화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대한민국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공동 회장

8월 3일~9일, 한국미술관
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제16회 전시회 출품작



기능성 화장품 선물! '일타 강사' 윤태정 회원 우주선 탑승 체험 중인 이해옥 회원 박찬숙 회장 김현옥 회원 이계진 수석부회장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가워요!



아나운서클럽 모임이 갈수록 흥미진진해요!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윤태정 이계진 이현우 전찬희 황인우 원종배 김성수 정도영 손석기 박영웅 문무일 이후재 윤지영 김규홍 차기정 유지현 성연미 정영희 백연숙 전옥수 조건진 채영신 이해옥 정홍숙 조길자 윤영중 황우겸 박찬숙 김주혜 맹관영 박민정



아나운서클럽 발전기금 기탁

고故 임택근 고문 부인 김혜민 여사
송현주 아나운서 부부

아나운서클럽 후원 미담이 이어졌다.
지난 7월 5일, 고故 임택근(2020. 01. 12. 별세) 전前 고문의 부인 김혜민 여사가 그동안 아나운서클럽이 보내준 후의에 감사하다며 3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왔다.

또 제8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인 KBS대구 송현주 아나운서가 8월 1일 연회비와 함께 100만 원을 보낸 데 이어, 8월 9일엔 남편 홍순기 변호사도 100만 원을 기탁했다.

송년 모임 12월 27일(화) 오후 6시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호텔





제59회 '방송의 날' 특집

칼럼

자막 오류 개선, 공공기금 지원이 답

강재형(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펴낸 '2021년 방송언어 조사 자료집'을 보았다. 방심위에서 방송언어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최근 방송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창이다. 방송언어특별분과 회의에서는 자료집의 내용을 두고 걱정이 많았다. 방송언어 수준의 하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 흐름의 중심에 자막이 있다. 본문 784쪽을 채운 표현 가운데 '자막'이 4025건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게 방증이다. 올해 9차 실태보고서를 보면 전체 456건 중 '부정확한 표현', '띄어쓰기 오류' 등 자막이 126건으로 28%였다. '지적 사항'의 4분의 1 이상을 자막이 차지한 것이다. '간드야!' (간다!), '엄마 어디꺼ㅠㅠ' (엄마 어딿어) 같은 '의도적인 표기 오류'는 제작 자율성을 고려해 제외했음에도 그렇다. 나머지는 제작진의 실수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팬시리' (팬스레), '로맨티스트' (로맨티시스트) 등의 '실수'와 '무지'는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다. 그렇다, 정말 쉽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맞춤법 검사·교정 기능을 넣으면 된다.

국내 맞춤법 교정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N사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자막기용' 도입은 대학 3곳, 케이블 방송 2곳뿐이다. 다양한 매체가 '기사 작성용'으로 도입한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기사(문서) 작성기에 견주어 편집 프로그램에 관련 기술을 엮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지레짐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A사와 맞춤법 검사·교정 기술을 보유한 N사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한다. 비용 또한 크지 않다. 올해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방송사에 지원하는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수준으로 추산한다. 맞춤법 검사·교정 기능은 온라인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10만개에 육박했다. 개인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제작 현장에서는 '(편집) 프로그램 자체에 있으면 좋은데...', '맞춤법 검사를 제공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일이 복붙(복사·붙이기)해야 하니 번거롭다'며 한목소리를 낸다. 맞춤법 검사·교정 기술 수준은 충분하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도 어렵지 않다. 필요성이 크다면 도입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개인이나 개별 매체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내 돈 들여서' 까지 나설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관 기관의 공공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답이다. 기관 하면 떠오르는 '심의'와 '규제'에서 공공 콘텐츠 제작 '편의' 제공으로 인식을 전환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편집자 주 : 서울신문 7월 28일 기고 중복 게재

방송의날 축하연, 4년 만에 열려

한국방송협회(회장 KBS 김의철 사장)가 주최하는 제59회 방송의 날 축하연이 9월 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2018년 제55회 행사 이후 지상파 방송 경영 위기,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개된 축하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와 아나운서클럽 박찬숙 회장 등 250여 명의 방송인이 참석했다.

방송의 날은 1947년 9월 3일, 우리나라가 ITU(국제전기통신연합)로부터 독자적인 호출부호 HL을 부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이계진 이현우 김창욱 홍승택 어호선 남궁미 조일수 차기정 황인우 전옥수 배유선 송현식 정도영 윤지영 김규홍 이성화 이혜옥 채영신 정홍숙 박찬숙 차인태 이후재 송재익

알림

고맙습니다

연회비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금순)

지영서, 이장우, 윤태정, 김동우, 이세진, 고창근, 송현주, 김성웅, 손석기, 권혁화

발전기금



김혜민(고 임택근 부인) 300만 원



송현주(KBS) 90만 원



손석기(전 SBS) 100만 원



김규홍(전 KBS) (주)그래미 200만 원

광고 유치

조의를 표합니다

이현숙(전 KBS) 8월 24일 본인상
장현순(KBS부산) 7월 16일 모친상
고광수(전 KBS) 7월 4일 본인상
박주아(KBS) 6월 28일 모친상

축하합니다

권혁화(전 MBC) 9월 25일(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딸 계영 양 혼인
문영기(전 CBS) 9월 17일(토) 프레스센터에서 딸 용빈 양 혼인

수고하셨습니다

정예현 CBS 강원방송본부장 정년퇴직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KBS대구 <GPS와 리어카> 대상 고故 송해 특별상 수상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백재민·김도훈·박진영 기자가 공동 제작하고 이상협 아나운서가 내레이션을 한 KBS대구 <GPS와 리어카-폐지 수집 노동 실태 보고서>가 대상, 고故 송해 선생이 심사위원 특별상을 차지했다.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9월 5일 오후 3시부터 KBS TV공개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작품상 26편을 비롯해 대구 MBC 김혜숙 아나운서 등 18명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1973년 시작된 한국방송대상은 매년 방송의 날을 기념해 한해 최고로 인정받은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아나운서상 김혜숙 (대구MBC)
 <김혜숙의 여론 현장> 외

어디로 흘러와 어디를 향하고 있나



꿈 같은 일을 하면서 잠시 주춤할 때는 있어도 '관심' 갖고 '들여다봄', '진심'을 다해 '함께 나아감'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개인상 공적 조서는 출품 목적이 아니라 저를 가다듬고 새로이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생태, 환경', '자연', '더불어 사는 삶', '생명', '공동체', '공존',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방송에서 건져 올려졌습니다.

평가하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말에 책임을 무겁게 여기며 삶과 스스로를 다듬어온 시간에서 자존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공적 조서를 써내려가는 과정 자체가 충분한 '상'이 되었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등 떠밀려 온 꽃자리에 이름이 올라서인지 축하받는 게 무안합니다. 또 존경하는 여러 아나운서의 바통을 이어받는 상이라 무겁지만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고마운 점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누구인지 긴 소개가 필요한 지역 방송 아나운서에게 올해 아나운서 개인상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능력을 줄 세우고 치열한 경쟁으로 얻은 자리가 곧 인간 점수, 인생 평가로 대변되는 시대, 개인의 성취만을 위해 몰두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상마저 뒤따라니 충분한 격려가 됩니다. 하던 대로 계속 나아가라는 응원으로 여기겠습니다. 저와 대구MBC뿐 아니라 모든 지역 방송인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수상으로 뜻하지 않은 기쁨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아나운서 선배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1인 미디어, 1인 방송이 미디어 생태계의 큰 축이 되었지만 그래도 방송은 소통과 협력의 총체로 완성되어야 개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제게 가르쳐 준 건 '함께'의 무한한 가능성과 파급력입니다. 이번 개인상 역시 이름만 '개인'일 뿐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2년짜리 시한 있는 아나운서로 입사해 수명 연장을 하며 이런 영광을 얻게 된 데는 당연하지 않아진 '당연함'을 위해 애쓰고 관찰해 준 동료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제 방송을 만들어준 모든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에 더욱 이롭고 보탬이 되는 목소리를 고르고 주변을 살피며 '언행일치'를 이뤄나가려 합니다.

앞으로 15년,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 개인상 덕에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아나운서 2막, 막중하지만 시작이 좋습니다.

예능상 전현무 (전 KBS)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외

뿌리가 아나운서였다는 걸 잊은 적 없어



2022년 프리랜서를 선언한 지 정확히 10년 되는 해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지난 10년간 때로는 철저한 예능 MC로 때로는 버라이어티의 플레이어로 활약하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점은 저의 뿌리가 아나운서였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망가지고 우스꽝스러운 콘텐츠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교양적 마무리를 하려 노력했고, 뭔가 시청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 아나운서 태생으로서 가져야 할 일종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콘텐츠가 범람하고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이 붓물 터지듯 탄생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나운서로서 사명감을 더욱 잊지 않고 양질의 방송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아나운서 후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공헌R 김혜미 조태환 임재혁 (영동fbc)
 <움 : 비움, 세움, 채움>

재소자 자녀 위해 비우고, 세우고, 채우다



2021년은 우리 영동 극동방송 아나운서들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보내게 해준, 라디오 다큐 제작 때문이었습니다. 라디오 다큐 <움>을 통해 한 뼘씩 더 성장한 느낌입니다.

무엇을 주제로 삼을지 몇 주간을 고민하다가 김혜미 부장이 가져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의 책을 바탕으로 재소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제목을 정한 것이 바로 <움 : 비움, 세움, 채움>이었습니다.

움(womb)은 어머니의 자궁이 가장 편안하고 실만한 곳이듯 우리 사회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어렵고 힘든 마음을 비우고, 사회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우리의 사랑으로 빈 마음을 채워주자는 의미에서 비움, 세움, 채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주최한 프로그램 제작 공모전에 라디오 다큐 기획서를 제출하였고, 감사하게도 기획서가 당선되어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큐에 대한 제작 방향을 정해야 할 때, 막막하고 어려울 때 재소자들을 위해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이기학 목사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세진회, 법무부, 청송여자교도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라디오 다큐를 제작하면서 만났던 두 명의 인터뷰이가 생각이 납니다. 한 청년은 아버지와 함께 탈북하여 생활하다가 생활고 문제로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러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불우한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은 늘 범죄에 노출되어 중학교 때부터 청소년 보호시설과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과 성매매 도구로 삼고 포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지요. 지금은 자신을 도와주는 한 목사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라디오 다큐를 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사람', '사랑', 그리고 '세상은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다'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아직 세상은 살아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다큐 <움>을 제작하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혹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남겨진 재소자 가족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 주시길, 그리고 그들을 깊이 이해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큰 도움을 준 김정윤 아나운서,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에 큰 틀을 잡아주신 김혜미 부장을 비롯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한기봉 사장, 신요섭 이사, 이경지 사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청취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콜마 문화 탐방기

K-뷰티 선두 기업과 K-아나운서들의 아름다운 만남

유영미(전 SBS) 편집위원

SBS를 정년퇴직하고 자연스럽게 아나운서클럽으로 연결되면서, 나는 오히려 현역 때보다 더욱 선배님들과 만남이 많아지고 있다. 소속사가 있을 때는 살짝 예민하던 상황들도 아나운서클럽이라는 큰 그릇 속으로 들어와 보니 그동안 못 다한 사연들과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한다.

요즘 같은 때에 단체 대절 버스를 타고 문화 탐방을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풍이다. 6월 17일 오전 9시 KBS별관 앞에서 있는 35인승 빨간 투어 버스는 마치 어린 시절 소풍을 연상케 하는 즐거움과 기대가 가득했고, '한국아나운서클럽'이라는 큰 글자를 바로 버스 앞면에 표시해 놓아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콜마(회장 윤동한)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제조사 개발 생산 방식인 ODM 글로벌 기업이다. 기업 문화 탐방의 첫 순서는 1층 로비에 마련된 32년 역사 한국콜마의 경영 철학을 담은 홍보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시작되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임직원의 자생력을 높이는 인간 경영과 고객의 성공을 돕는 가치 경영 그리고 우보천리牛步千里를 실행하는 기업 문화 속에 천천히 함께, 한걸음씩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건강한 비전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한국아나운서클럽의 방문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있는 회의실에서 박찬숙 회장이 한국콜마에 감사패를 전달했고, 클럽 회원들은 문화 탐방 기념 단체 사진을 찍고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맛집으로 향했다.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방남순 정영희 김상근 정흥숙 전옥수 김상준 성선경 이현우 윤희자 조일수 조길자 차기정 채영신 박찬숙 김성수 어호선 반주원 김재영 김규홍 문무일 이계진 남궁미 이후재 이종태 최운형 박민정 유영미 전찬희 하지은 백연숙

점심은 우리의 전통 장독대가 진열되어 있는 한정식 집 '뒤옹박 고을'이었다. 서울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구수한 떡배기와 한식 반찬 음식들은 새벽부터 일정을 소화한 일행들에게 어머니 손맛이었다. 식사 후 티타임은 이계진 부회장이 일일이 모두에게 커피를 사주셔서 또 한번 활짝 웃고 스냅사진을 찍으며 답소를 나누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2시간 남짓 마이크를 잡고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게 사회를 보는 김규홍 책임 운영위원이었다. 저 연세에 좌중을 휘어잡는 열정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울했던 코시국 오랜만에

신나는 관광버스풍(?)의 오락시간은 선배 사이의 정을 도담게 했다.

한국콜마는 K-뷰티 산업을 이끌고 있고, 한국아나운서클럽은 선배존경 후배사랑 정신으로 K-아나운서들의 존재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통성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물길이다.

다음 문화 탐방에는 우리의 참신한 후배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함께 가는 길이 더욱 즐거웠으면 좋겠다. 늘 책임감 있게 수고하는 채영신 사무총장과 클럽의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봉사하는 박찬숙 회장에게 감사하며 클럽 회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박수를 보낸다.

편집자 주 : 아나운서클럽 문화 탐방이 6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한국콜마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2019년 가을 송추아트밸리 탐방 후 3년 만에 (주)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의 초대로 세종시를 방문한 회원 40여 명은 본사와 공장 견학 후 세종의 영농법인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결속을 다졌다.



힘내라, 한국어! 17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오만(傲慢)과 편견(偏見)
우리말을 만든 분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한민족의 조상들이다



김상준 (전 KBS) 언어학 박사

우리나라 신문방송은 한글날이 되면 우리말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쏟아낸다. 방송에서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훌륭한 우리말을 만드신 날입니다." 이런 말들이 넘쳐난다. 세종대왕은 한글, 즉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뿐, 우리말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냥 흘러 듣는다.

2022년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일로부터 576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1월 15일을 '훈민정음창제일'로 정하고 있다. 남한은 훈민정음 반포일인 세종 28년 음력 9월 상순, 즉 1446년 10월 9일을 기준으로 하고, 북한은 음력 1443년 12월, 양력 1444년 1월을 훈민정음 창제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은 한글을 주로 조선어 자모라 부르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말은 아끼고(?) 있다. 북한은 또 세종 통치 시기 인민대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강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글과 그 역사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 혼재된 결과이다.

아나운서클럽회보 2018년 9월호에 "한국어가 프랑스말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인용한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썼다.

이말은 2003년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韓中日 3국 방송 제작자들의 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이 모임에서 일본인 프로듀서가 일본의 한류 팬 여성들이 한국어가 프랑스말보다 아름답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류시대의 한국어에

대한 예찬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나온 '방송원화술' (리상벽, 김수희, 신덕홍, 1988)은 서울말, 특히 방송에서 나오는 한국어를 잡탕말로 깎아 내리고 있다.

"오늘 남조선방송에서는 남존녀비 사상과 썩어 빠진 부르조아적 생활양식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에서 녀자들이 남자에게 아양을 떨기 위하여 하는 코맹맹이 소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 그것마저 고유한 우리 말은 얼마 없고 영어, 일본말, 한자어가 절반 이상이나 섞인 잡탕말이며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는 형편이다."

음성언어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평양말은 거적대기 같고 서울말은 비단결 같다"고 말한다. 이렇게 한국어를 미화한 평가를 생각하면 북한 학자들의 우리말에 대한 오만과 편견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일본의 10대 20대 절반이 한일 믹스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조선일보(2022. 7. 28.)가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일본 도쿄 하라주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다케시타 골목의 한 라면 가게 앞에 세워진 간판을 예로 들었다. 여름 메뉴인 토마토 라면의 그림과 함께 '진차 우마이(チンチャウマイ), 쪼토 메푸타(ちょっとメプタ)'라는 일본어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진차 우마이'는 우리말 '진짜'를 일본 문자 카나로 소리 나는대로 쓴 '진차'에 일본어로 '맛있다'는 뜻의 '우마이'를 합한 말이다. '쪼토 메푸타'는 '조금'이라는 뜻의 일본말 '쪼토'에 우리말 '맵다'를 가타카나로 나타낸 '메푸타'를 더해 '조금 맵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일韓日 믹스(mix)어는 한본어韓本語라고도 한다는데, 한일혼합어韓日混合語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도 신문과 방송이 일본어 잔재를 없애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이던 일이 아득한 옛일로 느껴진다.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한국어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글전문자들은 상대방을 상대주의자로 몰고, 국한문자혼용론자들은 상대를 거의 사상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한글과 한자어에 대한 오만과 편견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K-POP과 한류 등 대중문화와 함께 우리 한국어가 세계의 젊은이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한국어와 한글, 우리말에 대한 오만과 편견으로 얼룩진 이념 투쟁과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세월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다. 영국의 여류 소설가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 1817)의 '오만(傲慢)과 편견(偏見)' (Pride and Prejudice)을 빌렸다.





회 | 원 | 동 | 정

박찬숙(전 KBS) 회장 『여성의정인물사』에 수록돼 출판간담회 참석



7월 13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여성의정인물사 시리즈 『세상을 바꾼 여성 정치인들』 제5권 『여성 정치 대전환의 시작』 출판 간담회에 참석했다.

제17대 국회 여성 의원 32명의 의정 활동과 역동적인 삶을 심도 있게 분석해 상·하권 476쪽으로 펴낸 제5권 도약기편 출판 간담회였다.

동료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박찬숙 회장은 제17대 국회의원 시절을 회고하며 감회가 깊었다고 밝혔다.



유영미(전 SBS) 편집위원 발레 <러브스토리> 무대서 내레이션



6월 25, 26일 양일간 고양아람누리 아람오페라극장에서 펼쳐진 '장선희 발레단'의 발레 <러브스토리>의 해설을 맡았다.

올해 3월 말 SBS 최초 정년 여자 아나운서가 된 유 회원은 배우처럼 무대에 등장해, <백조의 호수>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에 이르는 고전 발레와 역동적인 현대 발레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유지현(전 SBS) 편집위원 국제언론인포럼 특별 대담 등 진행



2021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러시아의 「노바야 가제타」 창간인 겸 편집장 드미트리 안드레예비치 무라토프와 특별 대담을 이끌었다.

유지현 회원이 총괄하고 사회를 맡은 국제언론인포럼과 인터뷰는 시그니스세계총회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8월 16일 오후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회의장에서 '평화, 디지털 시대 언론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려 방송과 줌,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한편 시그니스세계총회는 세계 미디어 종사자, 가톨릭 언론인들의 국제 모임인 시그니스 SIGNIS가 4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총회는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렸고 유 회원은 대변인 겸 집행위원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했다.

원로들, 분당서 꾸준히 모임 이어가



8월 16일 정오 경기도 분당구 수내동 한식당에서 황우겸, 박중세 고문을 비롯해 근동에 사는 회원 10여 명이 반갑게 모였다. 맹관영 회원이 주최한 이날 모임에는 이현우 편집장, 강재형 아나운서도 참여해 아나운서클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어호선(전 KBS) 대한노인회 중앙회 고문으로 추대돼



8월 8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어호선 회원은 지난 11년간 이사로 있으면서 중앙상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 법제위원,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11년에는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병래(전 KBS) 해양문화제 사회 등 부산 문화계에서 활약



부산문인협회 주최로 8월 5일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린 제26회 한국해양문화제 사회를 보았다.

이어 8월 31일에는 부산 경성대 최고지도자 과정 입학식에서 축사를 했다.

조건진(전 KBS) 감사 한케이골프 홍보대사로 위촉돼



6월 21일,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골프 회원권 업체 한케이골프 홍보 대사에 위촉되었다.

조건진 감사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홍보 이사, 대한골프협회(KGA) 규칙 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박용찬(전 MBC) 워싱턴미주방송 KBC화보 국내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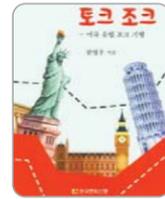


1980년부터 워싱턴미주방송을 운영하며 2017년 7월 6일 유튜브 등재에 이어 올해 초 KBC화보를 발간, 한국 정부 등 국내 주요 기관에도 배부했다.

박 회원은 워싱턴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AM730Khz로 매일 한국어 방송을 실시하며,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이산가족 만남의 창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KBC화보는 워싱턴미주방송 한국 지사(washingtonkbc.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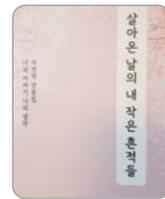
전영우(전 KBS) 고문 『토크 조크-미국 유럽 조크 기행』 『신념 이야기』 동시에 펴내



미국, 영국, 프랑스의 조크를 모은 <토크 조크>와 신념과 생각의 실현을 다룬 번역서 <신념 이야기>를 7월 15일, 한국문학신문에서 펴냈다.

전영우 고문은 “대화 중에 좀 더 세련되고 격조 있게 감정을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토크 조크>를 통해 유머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펴낸 번역서 <신념 이야기>는 마음, 잠재 의식, 이미지, 생각은 실현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문(전 KBS) 『살아온 날의 내 작은 흔적들』 펴내



7월 27일,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고마운 인연 이야기를 쓰고 싶어 <살아온 날의 내 작은 흔적들>을 지식과 감성에서 펴냈다.

김지문 회원은 1968년 11월, 18살 소년 아나운서로 KBS 포항방송국에 입사 해 2008년 정년퇴직하기까지 아나운서로 11년, 방송 심의 12년, 편성에서 12년 등 37년간 근무 후 KBS미디어 이사, KBS사우회보 편집장을 지냈다.

조나옥(전 CBS) 『레베카의 작은 이야기』 펴내



독실한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생활 수필집 <레베카의 작은 이야기>를 남편인 이형모 전 KBS 부사장의 삽화를 곁들여 도서출판 새한에서 펴냈다.

조나옥 회원은 1970년 5월에 CBS로 입문해 <스튜디오830> 등 KBS 라디오와 TV에서 프리랜서로 활약한 바 있다.

조수빈(전 KBS)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펴내



‘사랑, 커리어, 삶’을 화두로 한 첫 수필집을 파람북에서 펴냈다.

그리고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법원도서관, 8월 26일 세종시 꾸메문고 등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2005년 공채 31기로 입사한 조수빈 회원은 2019년 퇴사 후 채널A <뉴스A> 앵커로 활약 중이다.



Zoom-in 이성화(전 TBC), 김채영, 정영희 (전 MBC)

원로 여성 아나운서들 "추억은 방울방울, 인생은 이롭다워!"

이성화 회원은 1959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인 부산MBC(HLKU)에서 아나운서를 시작, 서울 MBC, RSB-동양 라디오(동양방송 TBC, 현 JTBC 전신)에서 활약하며 인기를 모았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마이크를 떠난 후 30년의 공백을 깨고 비영리방송 관악공동체 라디오, 관악FM에서 시니어 대상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 <퀘지나 청춘>을 재량껏 기획·진행하며, "나이 들어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듣는데 이해가 깊고 원인 분석이 빠르니까."라며 만년 청춘을 구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추억을 말합니다' 코너엔 50년 만의 방송 출연이라는 초록회 정영희 회장과 김채영 회원을 초대해 정담을 나누었다. 그 방송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 방송 생활

이성화 두 분과 저는 운 좋게 아나운서가 돼, 인기 직업인으로 즐겁게 방송하고, 이제는 아나운서클럽에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네요.

김채영, 정영희 저희는 1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1967년에 MBC에 입사해 72년에 퇴사한 동기생입니다.

이성화 채영 씨는 유명한 임택근 아나운서와 같이 아침 방송을 하셨잖아요.

김채영 당시 MBC 아침방송이 큰 인기를 끌었죠. 임택근 상무님과 요즘 KBS의 <아침마당>과 같은 방송을 했어요. 매일 바뀌는 아이템을 연구하느라 새벽부터 퇴근 후까지 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김채영 저는 TV 아나운서로 뽑혔는데, 아나운서가 모자라 오후 6시 라디오 방송까지 하게 됐어요. 당시 신인 가수 이던 남진, 나훈아 씨가 리허설 때부터 일찍 와서 한참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노래만 부르고 가곤 했지요.

정영희 군대 간 남편과 연애 중에 신청곡을 받아서 제가 방송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부대의 누구한테 보낸다' 그러면 부대원들이 다 들으며 무척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채영 <임택근 모닝쇼> 할 때 전방 위문 방송하러 갈 때도 있었죠. 위문품은 라디오 몇 대뿐 아주 빈약하지만 열화 같은 호응을 받았지요.

이성화 TV 방송 초창기에는 필름을 수입해야 돼 녹화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텔레비전 생방송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지요?

김채영 대한항공에서 협찬할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비행기 앞에서 직접 광고(CM) 문구를 생방한 적도 있어요.

이성화 두 분을 모시고 대화를 하니 마치 옛날 잡지를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엔 아나운서들도 잡지에 많이 등장했지요. 아나운서들이 결혼하면 취재하러 오곤 했잖아요.

정영희 1971년도 <여성동아>에 '올 가을 결혼합니다. 정영희 아나운서' 하면서 몇 페이지 장식했는데, 그 잡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하.

김채영 저도 연예면에 '어떤 사람하고 언제 어디서 결혼을 한다' 했지요.



• 노년 생활

이성화 저도 한동안 쉬다가 다시 관악FM에서 방송하지만, 우리 세대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건 특별한 개성을 가진 여성이 아니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에는 여성 직원이 커피 타고 책상 닦는 걸 당연히 여기다가 '결혼하면 그뿐이다' 했잖아요. 그 후 어떤 여성이 '직장에서 커피를 안 타겠다. 왜 나를 커피 타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항변한 게 신문에 날 정도였지요.

여권 신장 이면엔 앞서 희생한 7, 80대 여성들이 있기에, 오늘날 성공한 여성들이 먼저 길을 개척한 선배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아나운서 한 사람들은 그런 걸 안 겪었으니까 모르지만요.

정영희 전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38, 9살 때 MBC 모니터 요원 모집에 응시해 합격했어요. 근데 10명의 여자들만 저를 제외하고 다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 강사 출신인 거예요. 고학력 여성들이 높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정한 문화방송을 비평하게 되니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걸 '내 일이 아니다' 하고 2년 후 그만두었지요. 하하.

김채영 여태까지 너무 교만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나마 임국희 선배님을 중심으로 MBC 출신 여성 아나운서, PD 모임인 초록회를 결성해 후배 여성 방송인들을 격려하며 아나운서클럽의 부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성화 우리 인연의 출발점, 아나운서클럽의 창설자이신 황우겸 선배님의 저서 <늦철 들어 이 뭇고?> 중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읽어 보지요.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해진다

황우겸

히루에 히나씨 감사할 거리를 찾자
한마음 한뜻이 되면 희망이 생긴다
살아가기대로, 번지가 치유로
삶의 목표가 다시 솟아오른다.

나이 들면 돈이 행복이요
돈돈한 말천이라 하였으나
마음의 저속 사랑이 빠지면 헛것
건강이 말천이요 행복이다

건강있으면 돈이 무슨 도움이냐
사랑과 고마운 마음 없으면
돈과 건강 모두 달아내버린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성화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저 분이 내가 들었던 목소리인데...' 아마 그런 분이 지금 계시지 않을까 싶어 흐뭇해요. 추억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도 다시 젊어진 거 같아 기쁩니다.

• 가정 생활

이성화 예전엔 여자 아나운서는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하는 걸로 알았지요. 김채영님은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정영희님은 출산을 하고도 다녔다면서요?

김채영 저희가 동기인데도 '재는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예요. 다들 '왜 정영희 씨는 또 다니냐?' 이런 말을 했지요.

정영희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탁 사표를 냈지요. 하하.

이성화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정영희 살림 한 번 해본 적 없이 결혼해서 연탄 아궁이가 있는 광명시 13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한 번은 저희 시부모님이 오셔서 밥을 차려드린다고 했는데 밥을 태웠지 뭐예요. 어머니가 "잠깐 있거라, 우리 어디 좀 갔다 올게." 하시고는 영등포까지 다녀오셔서 "애야, 이게 골드스타 전기 밥솥이다!"라며 밥솥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누룽지 없는 밥을 먹었죠. 하하.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이성화 저도 레일로 넣어서 방을 덮이는 연탄 구들 집에서 살았어요. 그때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지요. 김채영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김채영 전 시가가 대구라 처음부터 분가해 여의도의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출근하면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 살면 좋겠다 생각해 직접 단독주택을 지었지요. 그렇지만 젊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워서 다시 서초동 아파트로 나와 지금까지 근 40년을 살고 있네요.

정영희 저는 1979년에서 81년까지 남편 따라 독일에서 산 적이 있어요. 9살, 6살 아이가 가정교사로 29세 독일 여성을 채용했는데, 그 여성이 제가 홈드레스를 입고 있는 걸 보고는 "왜 파티 드레스를 입고 있냐"고 묻더군요. "우리에게는 이게 홈드레스다."라고 했더니, "당신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나왔고 아나운서도 했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왜 집에 있어요?"라고 해 충격을 받았었지요.



방 | 송 | 가 | 소 | 식

KBS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진 발표!



전 세계인의 축제, 카타르 월드컵을 백여 일 앞두고 중계진이 발표되었다. 안정적이면서도 재미와 감동을 모두 잡을 이광용, 남현중 아나운서가 캐스터를 맡는다. 이광용(사진 오른쪽) 아나운서는 지난 러시아월드컵 카잔의 기적, 그 감동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도쿄올림픽에 이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르는 남현중 아나운서는 신선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설진으로는 대표팀의 주장을 지냈고, 월드컵도 경험해본 구자철이 새로운 해설위원으로 합류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조원희 위원과, 믿고 듣는 해설위원 한준희 위원도 함께 한다.

MBC 아나운서들 <쉬운 우리말 극장> 기획·출연



한글날을 맞아 MBC 아나운서국이 국어문화연구원과 함께 드라마 형식의 우리말 정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작년 애니메이션 더빙에 이어 올해는 드라마로 일상 속 올바른 우리말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대학원에서 연기를 전공하며 대학로에서 연극과 뮤지컬을 올리기도 했던 김정근 부장을 필두로 선후배가 의기투합하여 지난 8월 21일 촬영을 마친 <쉬운 우리말 극장>은 10월 9일(토, 8:55-9:55)에 방영될 예정이다.

'사회자의 깜짝 연주' 김정현, 국립심포니와 피아노 협연



8월 3일, LG아트센터(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전 개관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사회자 김정현 아나운서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을 깜짝 연주하며 피아노 실력을 과시했다.

김정현 아나운서는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9월 13일에도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리는 '고전과 바로크 사이' 공연의 진행과 피아노 연주를 펼쳤다.

SBS 김다영,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진행



김다영 아나운서가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트렌드 보고-문화를 사고 팝니다, MZ> 진행을 맡는다.

김다영 아나운서는 내레이션과 MC를 맡으면서 '요즘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최대한 쉽고 즐겁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OBS 8월 29일부터 메인 뉴스 타이틀, 편성 변경



김준호, 유진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메인 뉴스가 <OBS 뉴스 O(원)>으로 타이틀이 바뀌었다. 으뜸 뉴스(One)과 열린 뉴스(Open)을 의미하는 <뉴스 O(원)>은 경인 지역 현안을

심층 보도한 후 국내의 정치 경제 이슈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 전달한다.

홍원기 앵커의 <뉴스 오늘>은 오후 4시 30분, 김준우 앵커의 <뉴스라인 인천 경기>는 오후 10시 40분으로 이동되었다. 유영선 아나운서와 임성민(전 KBS) 아나운서가 진행 중인 '생방송 어서옵쇼(OBSHOW)'는 오후 6시 30분으로 이동되었다.

CBS 이강민, 신설 프로그램 진행



<굿모닝뉴스>, <주말엔 CBS>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이강민 아나운서가 신규 교양 예능 프로그램 <잡다한 지식사전-잡지사>을 맡았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다양한 인문학 주제들을 유쾌하게 풀어가는 <잡지사>는 9월 말부터 CBS 표준FM에서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시청할 수 있다.

TBS 라디오 가을 개편 실시

대대적인 가을 개편이 실시되었다. 황진하 아나운서가 평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오늘도, 황진하입니다>를 맡아 2시간 동안 청취자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선사한다. 이어 오전 11시~12시 신규 프로그램 <모빌리티 토크쇼, 모토쇼>는 황원찬 아나운서가 맡아 시시각각 달라지는 모빌리티의 현주소를 소개한다. 조현아 아나운서는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달콤한 밤, 조현아입니다>를 진행한다.

이민준 입사, 황진하는 산문집 출간



6월 치러진 공채 결과 이민준 아나운서가 7월 17일 입사했다. MBC 스포츠플러스를 거친 이민준 아나운서는 현재 평일 아침 7시 <TBS 출근길입니다>를 진행한다.

한편 황진하 아나운서는 7년간 직접 쓰고 낭독했던 원고를 매만져, 지난 7월 산문집 『아주 사적인 순간들』을 출간했다.

febc <찬양예배 위드힘> 추석 특집 방송



2022년 극동방송의 사역 표어 '하나님을 찬양하라'에 맞춰 매주 금요일 찬양으로 예배하는 프로그램 <찬양예배 위드힘>이 지난 9월 6일 추석 특집 방송을 진행했다. 귀경길과 귀성길, 가정에서 같이 부를 수 있는 우리 가락 찬양으로 구성해 시청자들과 한가위의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cpbc 김지현, 시그니스 개막식 진행



김지현 아나운서가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의 축제인 '시그니스(세계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세계총회'의 개막식을 진행했다.

8월 15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신문과 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언론인과 영화 등에서 활동하는 커뮤니케이터들이 함께 했다. 개막식에는 가톨릭 역사상 첫 평신도 출신 교황청장관인 파올로 루피니 박사도 방한하여 의미를 더했다.

BBS 화계사 중건 500주년 기념 특집 방송



서울 삼각산 천년 고찰 화계사의 개산 1070여 년과 이주 중건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 이효주 아나운서의 <싱싱라디오>는 화계사 교무국장 광우스님이 출연해 '도심 천년 고찰'의 의미를 더했다. 광우스님과 이필원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이 출연한 TV토크쇼 <화계사 천년의 기억, 희망의 미래로>는 배우 김혜옥과 김명석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www.glami.com



숙취해소 단한방! 여명 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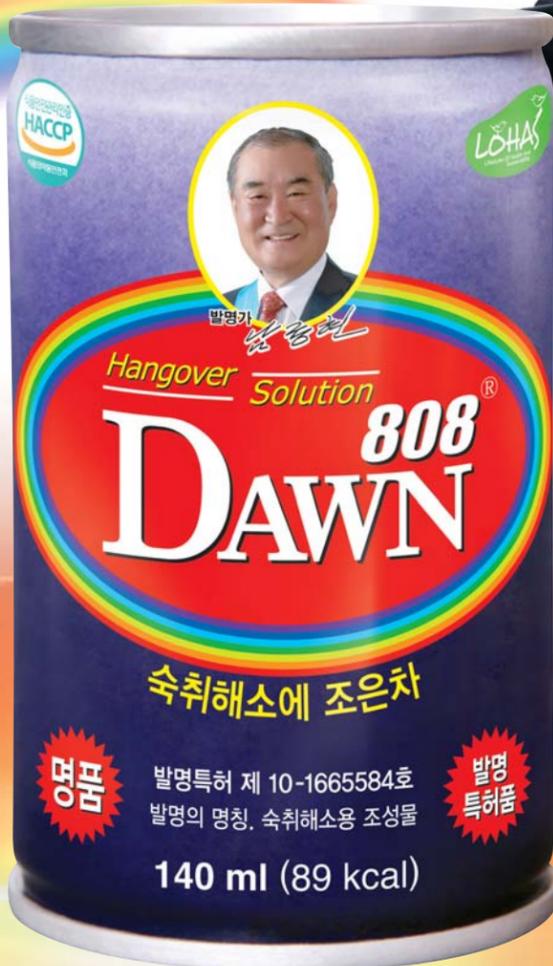


당당하게 살자

접대, 회식,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어깨를 펴고 술자리를 즐겨라
여명1004와 함께 나는 당당해진다.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숙취해소에 정말 좋은 여명 808[®]



세계 발명왕

남경현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1위 선정 (18년 연속),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13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선정 (15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대상 (1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5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14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13년 연속)



소비자 상담전화 080-4073-808

가까운 지사, 약국,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